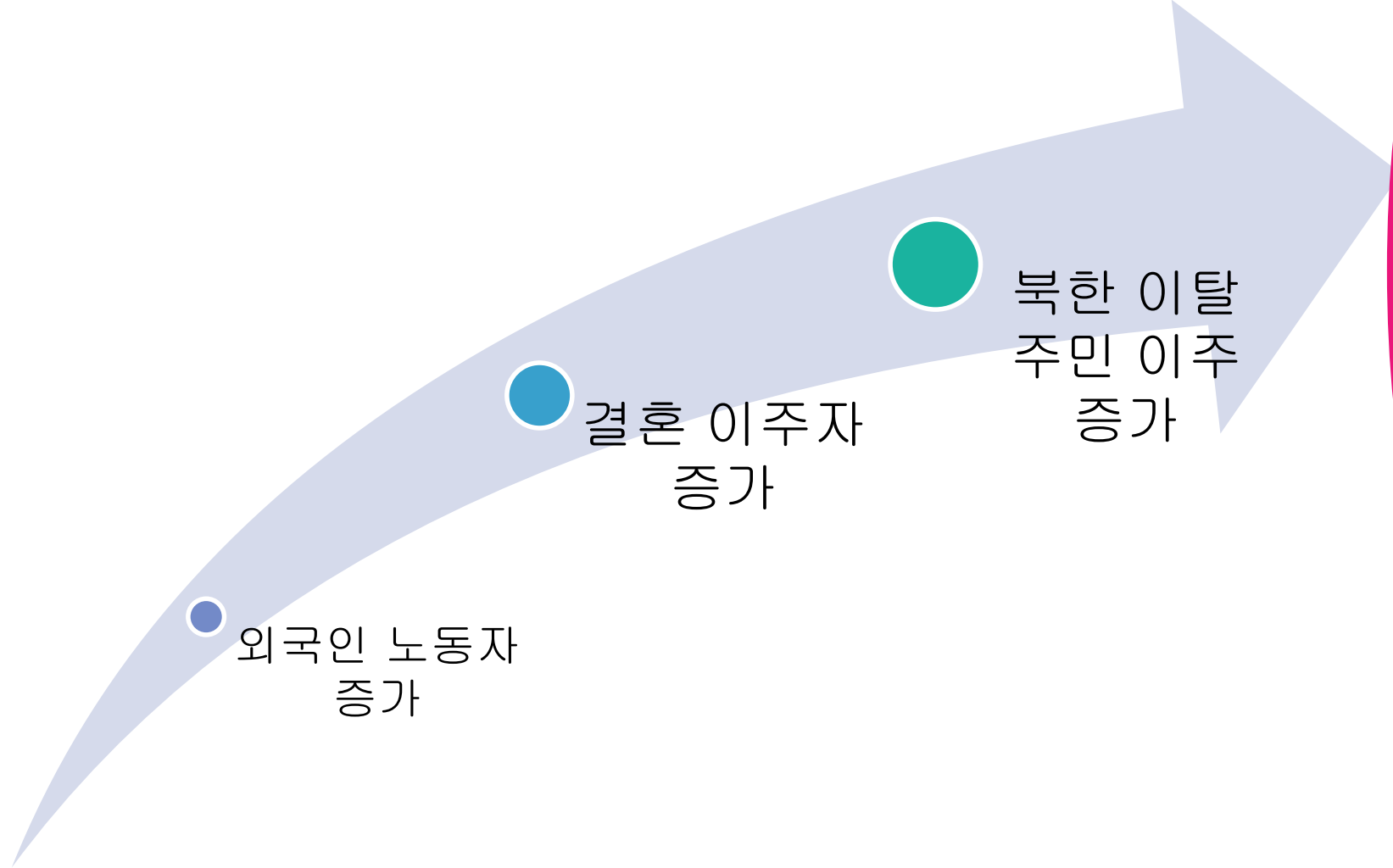


독일 - 다문화 사회

2016-1 가천대학교 독일의 이해 14주



그림(사진) 자료는 저작권 문제로 수업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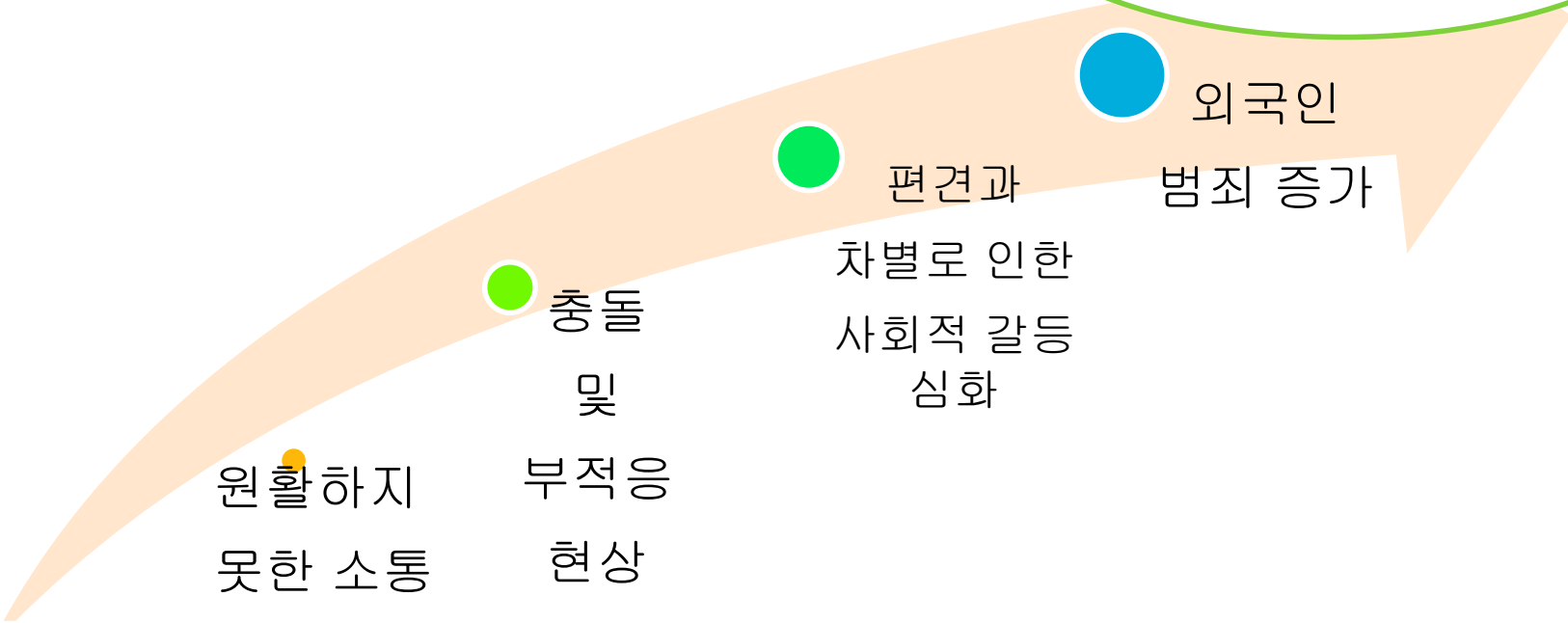
결혼 이주자
증가

북한 이탈
주민 이주
증가

다문화 사회

사회 구성원 및 문화 간

상호간의 이해 및
구성원 간의 효과적인
소통 방법 모색



어쨌든 분명한 것은, 오늘날 다양한 문화 간의 상호 작용 속에 살고 있음이 범세계적인 현상이라는 것!

다양한 문화의 교류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조건이 되었다면,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화합은 반드시 도모되어야 할 문제일 수밖에...

문화 교류가 있는 곳에는 (어떤 형태로든) 문화 간 대립, 갈등, 혼란 및 그로 인한 구성원들의 고통도 따르기 마련...

1. 다문화 사회로



2013.10.18~
EBS: 목요일 밤 10시 45분



2011.12.4~
채널 A: 일요일 밤 11시



KBS2: 2006년 11월 26일 ~
2010년 5월 3일



2015.7.17~ TV조선: 금요일 밤 11시



2014.7.7~ JTBC: 월요일 밤 10시 50분



KBS1: 2015.2.22 종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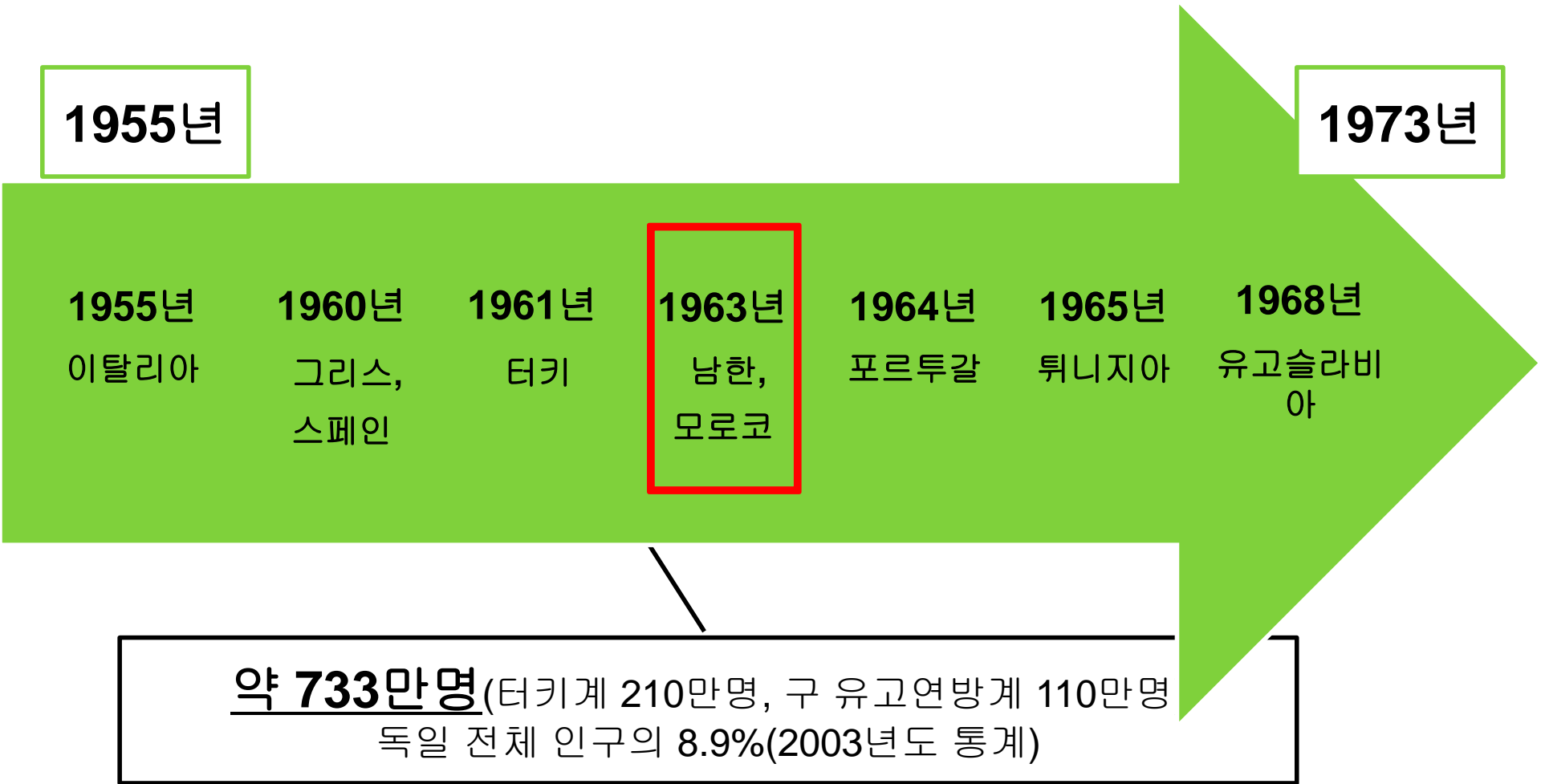
2015.3.12~
채널 A: 토요일 밤 9시 30분

1. 다문화 사회로 - 1) 근세 이후 독일로의 외국인 이주(대규모) 역사

- 17세기 중엽: 프리드리히 1세(후에 프로이센 왕으로 등극)에 의한 프랑스 신교도였던 위그노 파의 브란덴부르크 지역 이주
- 1870년대: 석탄과 철광석 채굴을 목적으로 루르지방으로 폴란드인 이주
- 1880년대: 아프리카지역의 식민지 개척에 따른 이주
- 1945년 이후: 동유럽에서의 이주
- 1955년 이후: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이주
- 1960년대 후반 이후: 동구권 반체제 인사들의 망명
- 1970년대 후반 이후: 아랍권 반체제 지식인들의 망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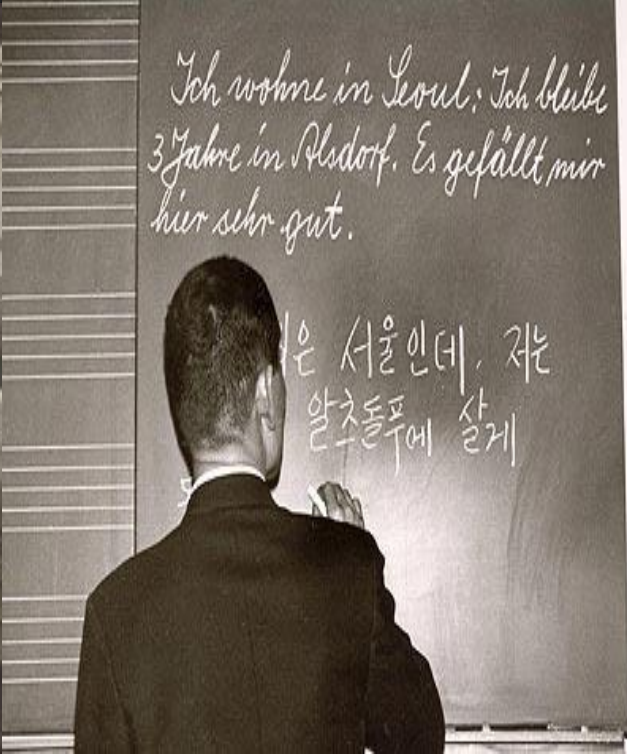
1. 다문화 사회로 – 2) 1955년 이후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이주 현황





**Für 60 Mark einen
Italiener**

Wir begleiteten Eisenarbeiter aus dem
südlichen Italien auf ihrem Weg in die Fremde





Fast jeder Zweite fürchtet Überfremdung

Angela Merkel kann es nicht mehr hören, die Bundesbank gerät in Erklärungsnot: Ihr Vorstand Thilo Sarrazin provoziert und sorgt für kontroverse Meinungen. Eine seiner Sorgen teilen: die Angst vor Überfremdung.

독일: 1950년대 이후 많은 '경제이민자'가 유입되었고, 이후 동. 서독 통일이라는 특수한 상황까지 겪으며 우리보다 먼저 (포괄적 의미의) 다문화 사회로 진입

Knapp jeder zweite Deutsche (46 Prozent) teilt die Furcht des Bundesbank-Vorstands Thilo Sarrazin, die Deutschen könnten immer mehr zu Fremden im eigenen Land werden. Eine Umfrage für das Hamburger Magazin 'Stern' zeigt: Die Auffassung nicht. Besonders viele Politiker von Bürgern mit Hauptschulabschluss (66 Prozent), Anhängern der FDP (66 Prozent). Am geringsten ist sie bei Wählern der Grünen (23 Proz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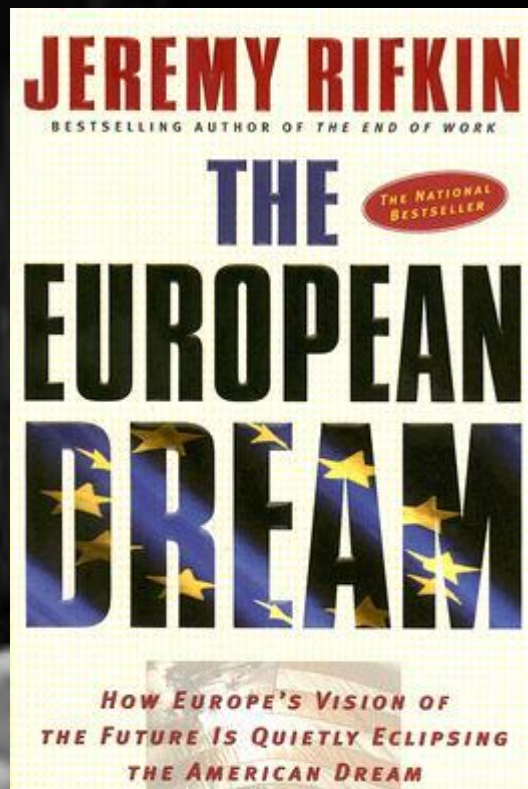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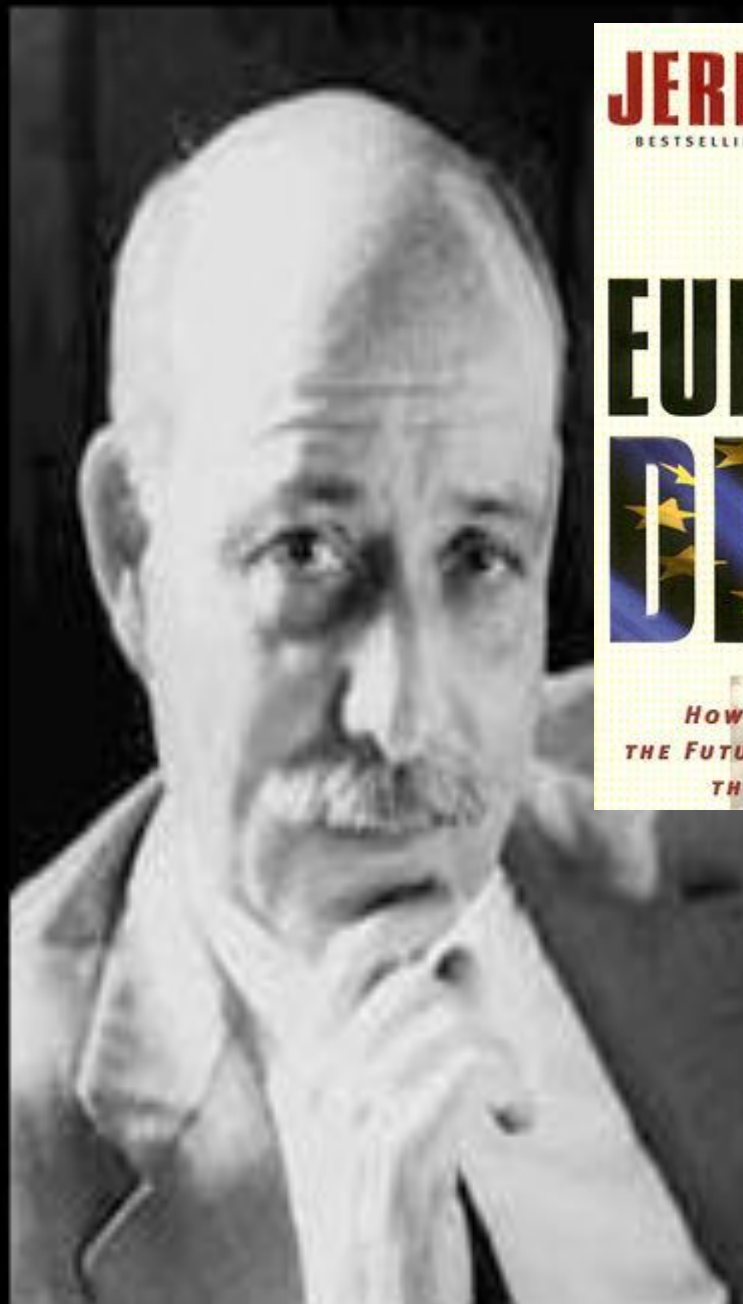
늦게 다문화 사회에 진입
한 우리와는 또 다른 문제
에 봉착했음

“과도한 이국화에 대한 두려움
Angst vor der Überfremdung”

am 26. und 27. August 2010 teil.



2. 아메리칸 드림 vs. 유러피언 드림??!!??!



『유러피언 드림, 아메리칸 드림의 몰락과 세계의 미래, The European Dream』

아메리칸 드림: '타문화'에 대한 배타성 -> 더 이상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지 못함. 근대 국가적 주권 개념 -> 오늘날 국제 사회에서 '일방적'이라는 비난, 국제 사회에서의 주도적 위치마저 흔들리게 됨.

유러피언 드림: 거대 공동체 안에서 구성원들이 각각 자신들의 고유하고 다양한 색깔을 유지하면서 함께 어울리려는 기본 정신 ->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며 서로 공존하는 유럽의 정신이야말로 미래를 선도할 것이다!

Jeremy Rifkin

2. 아메리칸 드림 vs. 유러피언 드림???!!???! ① 페기다



1920년 하켄크로이츠 도입
당 깃발의 붉은색과 흑색: '피와 대지(Blut und Boden)' 상징



서양 이슬람화에 반대하는 애국적 유럽인들

색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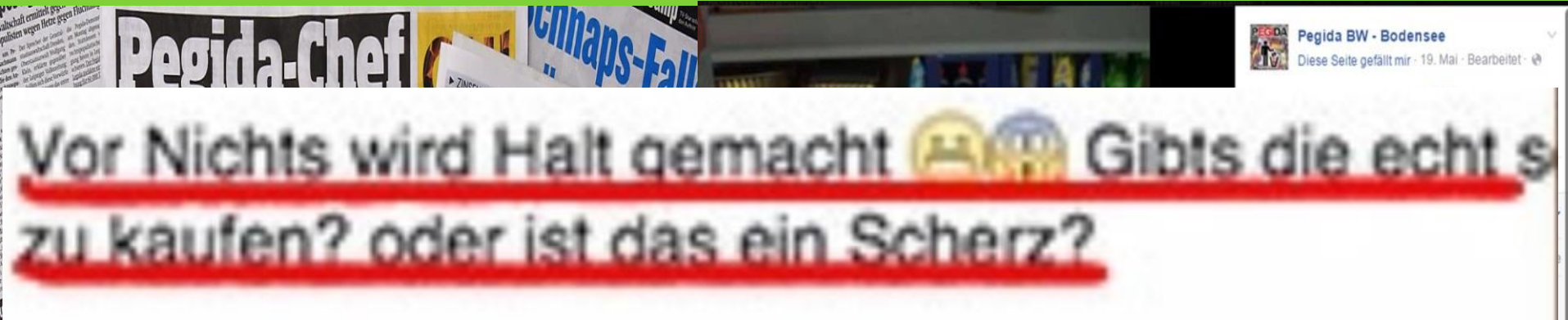
사용하는 단어
Boden(대지, 땅)



독일 땅에서의 비폭력 & 반 신앙 전쟁 연대

페기다 (2014년 10월 11일 Facebook 그룹으로 시작)

2. 아메리칸 드림 vs. 유러피언 드림???!!???! ① 페기다



막나가는 거지? 정말 판매용으로 이런 게 있어? 아니면 장난인가?



2015년 1월 21일: 페기다 대표 루츠 바흐만(Lutz Bachmann) 히틀러 흉내 낸 셀카 사진 논란으로 대표직 사퇴

원래 kinder 초콜릿은 평범한 독일 어린이(백인 어린이)가 포장지 모델이었는데 이것을 흑인과 아랍계로 바꿨다며 비난

포장지의 어린이 모델은 독일 축구국가대표 스타들의 어린시절 모습

독일에서 태어나 분데스리가에서 뛰는
일카이 권도간(보루시아 도르트문트)과
제롬 보아텡(바이에른 뮌헨)이다



2. 아메리칸 드림 vs. 유러피언 드림???!!???! ① 페기다



【드레스덴=AP/뉴스시스】 독일의 반(反)이슬람단체 ‘유럽의 이슬람화를 반대하는 애국적 유럽인들’ (PEGIDA·페기다) 설립자 루츠 바흐만이 아내 비키 바흐만과 함께 드레스덴 법원 재판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바흐만은 징역형은 면했으나, 난민들을 ‘인간쓰레기’(scum)라고 지칭한 데 대해 9600유로(약 127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2016.05.04, 2016-05-04

2. 아메리칸 드림 vs. 유러피언 드림???!!??? ① 폐기다 vs. 반 폐기다

2015년 1월 21일 저녁 라이프치히: 폐기다 시위대와 폐기다 시위 반대 시위대의 충돌



Warum das Umfrage-Ergebnis der CSU so ist, wie es ist

Nur noch 40 Prozent- dieser Zustimmungswert hat die CSU geschockt. Dahinter verbirgt sich allerdings eine längere Entwicklung: der kontinuierliche Vertrauens- und Bedeutungsverlust der einst modernsten Volkspartei Europas.

Von Manfred Güllner



메르켈 총리의 난민 정책(개방)을 강력하게 비판해 온 기독교 사회당의 지지율 급락!

아직까지는 '제어'가 잘 되고 있음!



3. 주도문화 중심의 흡수 동화인가? 다문화 공존의 통합인가?

SPIEGEL ONLINE

16. Oktober 2010, 19:07 Uhr

Integration

Merkel erklärt Multikulti für gescheitert

2010년 10월에, 기사연 CSU 의장 호르스트 제호퍼 Horst Seehofer에 이어 연방 수상 앙겔라 메르켈 Angela Merkel이

"다문화 정책은 실패했다, 완전히 실패했다. Der Ansatz für Multikulti ist gescheitert, absolut gescheitert!"

이민자들에 대한 후원 못지않게 이제 그들에게 더 많은 요구를 할 것임

Zuvor hatte Seehofer in der Integrationsdebatte mit drastischer Leitkultur und gegen Multikulti ein - Multikulti ist tot." Am Samstag sprach Seehofer. Darin heißt es:

Deutschland sei kein Zuwanderungsland. Integration bedeute "ein gemeinsames Fundament der Werteordnung unseres Grundgesetzes auf jüdischen Wurzeln und von Christentum, Humanismus und Aufklärung". Ein prognostizierter Fachkräftemangel könne kein Freibrief für unkontrollierte Zuwanderung sein. Seehofer "ausreichend geregelt". Eine Aufweichung der restriktiven Regeln des geltenden Zuwanderungspunktesystems dürfe es nicht geben. "Integrationsbereitschaft und Integrationsfähigkeit" solle als zentraler Punkt stehen. Das Nachzugsalter für Kinder solle von 16 auf 12 Jahre herabgesetzt werden, damit sie besser integrieren können, schreibt Seehofer und plädiert für Integrationsverweigerer. Für Integrationsverweigerer fordert Seehofer eine konsequente Leistungskürzung. Auch "wer die Integration seiner Familienangehörigen verweigert, muss mit einer Integrationsverweigerung sanktioniert" werden.



Eine nach wie vor hohe Bedeutung für gelungene Integration m

Kanzlerin Merkel beim Deutschlandtag der Jungen Union: Mehr fordern als fördern

DER TAGESSPIEGEL

27.02.2011 21:18 Uhr

Rede in Düsseldorf Erdogan warnt vor Au

Der türkische Ministerpräsident
wachsenden Ausländerfeindlich
in Düsseldorf verfolgten 10.000



Der türkische Ministerpräsident Recep Tayyip Erdoğan in Düsseldorf. - FOTO: DAPD

und mit Gewalt etwas Anderes auf
"Unterschiede als Reichtum" anzusehen

Er beobachtete Ausländerfeindlichkeiten in Deutschland und anderen Ländern mit Argwohn, sagte Erdogan.

터키 수상 레첵 타이입 에르도간 Recep Tayyip Erdogan 2011년 초 뒤셀도르프 연설:

"이슬람 공포증은 반유대주의처럼 인간성에 반하는 범죄다. Islamophobie ist ein Verbrechen gegen die Menschlichkeit, genauso wie Antisemitismus."

“통합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그러나 동화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그 누구도 우리 고유의 문화와 정체성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을 것이다. Ich sage Ja zur Integration, aber Nein zur Assimilation. Niemand wird in der Lage sein, uns von unserer eigenen Kultur und Identität loszureiß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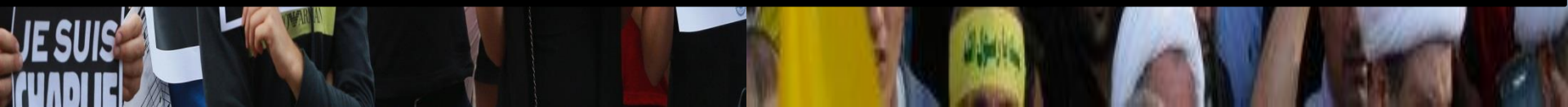
민주주의에서는 "다름이 풍요로움으로 Unterschiede als Reichtum"

서로를 이해하려고 상호 간에 노력해야 gegenseitig versuchen, uns zu verstehen"

3. 주도문화 중심의 흡수 동화인가? 다문화 공존의 통합인가?



* 2015년 1월 7일 파리: 두 명의 이슬람 근본주의자의 <Charlie Hebdo> 잡지사 테러 - 12명 사망, 10명 부상



다문화 사회통합 모델: 호주의 사회학자 스티븐 카슬과 마크 J. 밀러의 <이주의 시대>(1994)

차별적 배제 모델(differential exclusionary model)

- 자국 내로 들어온 이주자들이 자국민의 정체성과 문화를 위협하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그들을 제한하여 자국민의 정체성과 문화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려는 사회통합 모델
- 자국민과 자국 내 거주 외국인의 차별 허용
- 자국 내로 유입된 외국인은 3D 분야 고용 등 경제 분야에서만 수용할 뿐, 시민권이나 선거권 등을 부여하거나 복지 혜택을 누리게 하지는 않음
- 자국민의 정체성과 문화의 안정을 먼저 확보하는데 주력

동화 모델(assimilation model)

- 많은 서구 선진국들이 초기 이민정책으로 채택한 모델
- 소수의 이주자가 다수인 자국민의 가치와 문화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도록 유도
- 이주자는 자신이 새롭게 선택한 국가의 문화 수용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음.
- 자국으로 들어온 이주자들이 출신국의 문화, 언어, 생활습관 등의 포기를 강요하지는 않으나 그들이 출신국의 문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지도 않음
- 이주자가 출신국의 언어 및 사회, 문화적 특성을 포기하고 자국의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주자들이 자국의 문화에 동화되었을 때 자국민과 동등한 권리 허용

다문화주의 모델(multicultural model)

- 차별적 배제모델과 동화 모델에 대한 비판으로 나온 모델
- 소수자의 문화를 포함한 구성원 개인의 다양한 문화를 동등하게 존중하고자 함
- 자국민과 이주자들 간의 소통과 이해 및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사회 구성원 전체를 포용하는 다문화적 정체성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사회, 정치, 경제적 문제 해결에 앞서 개인과 그들 고유의 문화가 가진 근본적인 가치를 인정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구성원들에 의한 자발적이고 평화적인 사회통합을 이루어내고자 함
-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회 구성원이 서로의 문화를 인정하며 평화적으로 공존하기보다, 자신이 원하는 문화 소에만 머무르며 타 문화와의 교류 및 소통을 소홀히 할 수 있다, 즉 여러 문화가 단절될 뿐일 수도 있다는 위험성 내포

4. 독일의 다문화 사회통합 정책

국가 간 협약 체결을 통해 수용한 초청노동자 통합 정책

1. 고용계약 만료 후 본국으로 귀환 -> 2. 외국인 근로자와 그 가족은 사회 통합의 대상이 아니라 귀환 대상 -> 3. 외국인 근로자들이 독일에 체류하는 동안에만 언어 교육 등 일시적인 통합정책 실시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후 통합 정책

1. 통일이 '더 나은 삶을 보장해 줄 것'이라 여겼던 구동독 출신 독일인들의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면서 외국인에 대한 적대감 심화 -> 2. 구 동독지역 극우파들이 '단일민족과 문화'를 외치기 시작 -> 3. 독일 거주 외국인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비유럽지역 출신 터키계 이주민과 독일인들과의 물리적 충돌 시작



오늘날의 독일 : 동화모델과 다문화주의 모델을 병용하는 정책으로 전환

결국 문화에 대한 상호 간 올바른 이해와 화합을 바탕으로 다문화 사회 통합을 이루는 것이 이주자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국민을 위해서도 반드시 도모되어야 할 문제일 수 밖에 없음을 인식

그러나 여전히! 주도문화 이론과 다문화주의 이론 사이에서 어디에 무게를 둘 것인가를 두고 끊임없는 토론이 벌어지고 있음

주도문화 이론

독일을 주도 문화(이끄는 문화)로 하여 자국 내/자 문화 내로 들어온 타 문화를 흡수 동화 시키겠다.

다문화 주의 이론

각 구성원의 고유한 문화를 동등하게 존중하여 다문화 사회를 형성하는 데 무게를 두겠다.

4. 독일의 다문화 사회통합 정책

[독일서 무슬림 난민 중 기독교 개종자 증가... 난민 승인 위해서?](#) 2016.06.1
경우도 있다. 지난 한 해 **독일 난민** 시설 내에서만 약 4만 건의 공격 행위(욕설·강
오순절교회 알버트 바바잔 목사는 자신이 **세례**를 준 약 300명의...



["디아코니아 정신 재조명.. 한국·독일 영적 동맹 이뤄야"](#) 2
이들의 숫자가 늘고 있다"면서 "최근 규모가 큰 **독일** 교회의 **세**
민이라고 한다"고 귀띔했다. 이렇듯 **독일**은 ...



[독일에 온 무슬림 난민들 사이에 '기독교 개종' 현상](#) [Daum Top](#) 2016.05.15 | 연합뉴스 | 다음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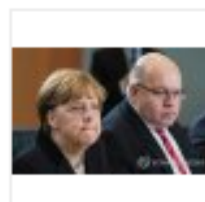
점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세례**했던 사람들은 근 ... 이어질 수 있는 까닭에 기독교로의 개종은 **독일**에서 **난**
민 지위를 얻는 근거로 여겨진다. 경찰과 시...

[독일의 무슬림 난민들 '기독교 개종' 확산](#) 2016.05.16 | 매일종교신문

[독, 무슬림 난민 기독교로 개종 확산](#) 2016.05.17 | 뉴스다임

[독일서 기독교 개종한 무슬림 80여 명 세례식 거행](#) 2016.05.11 | 뉴스미션

[관련기사 5건](#)



[독일서 환대 못받는 시리아 난민들 "우리가 축구공인가"](#) [Daum Top](#) 2016.01.15 | 연합뉴스 | 다음뉴스

현지시간) **독일** 수도 베를린청사 앞에선 씁쓸한 ... 물렸고 메르켈 총리의 **난민**정책을 반대하는 이들이 뒤섞
인 상황에서 **난민**들은 카메라 **세례**를 받았다...



[유럽행 난민들, 살기 위해 종교도 바꾼다..교회 정책에 용이](#) 2016.05.15 | 헤럴드경제 | 다음뉴스

바바잔 목사도 자신이 **세례**를 해준 약 300명의 무... 이어질 수 있는 까닭에 기독교로의 개종은 **독일**에서 **난**
민 지위를 얻는 근거로 여겨진다. 이 때문에...

5. 영화 <나의 가족 나의 도시>(2011)

사진촬영 금지!



나의 가족 나의 도시 Almanya - Welcome to Germany, 2011 제작

요약 독일 | 가족, 코미디, 드라마 | 2013.01.12 개봉 | 전체관람가 | 97분

감독 야스민 삼데렐리

출연 파리 야르딤, 베다트 에린킨, 릴레이 호저, 라파엘 코우스리스

줄거리 할아버지가 남겨준 소중한 유산! 추억을 따라 가족들의 즐거운 여행이 시작된다! 터키에서..

누적 관객수 **472 명** (2013.01.30,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동영상 (1건)



포토 (14건)



5. 영화 <나의 가족 나의 도시>(2011)

영화: <나의 가족 나의 도시>(2011), 감독: 야스민 삼데렐리

1. 영화 속 화자 카난은 독일에서 태어난 덕분에 무엇을 누리고 있는가?

① 가족의 굴레에서 벗어난 독립적인 삶 ② 경제 기적 ③ 남자친구와의 동거 ④ 대학생이 될 수 있는 기회

2. 50년대부터 독일로 들어온 남유럽 출신 노동자들의 건강검진 장면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는가?

① 가축 시장 ② 노예 시장 ③ 인력 시장 ④ 증권 거래소

3. 100만번 째 이주 노동자 아만도 로드리게스가 부상으로 받은 것은?

① 벤츠 자동차 ② 독일 영주권 ③ 2인승 오토바이 ④ 독일 수상이 주는 훈장

5. 영화 <나의 가족 나의 도시>(2011)

4. 후세인의 악몽 속에서 독일 이민청 직원이 독일 국민으로서 독일 문화를 따르기 위해 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이 아닌 것은?

- ① 사격 클럽 가입하기 ② 매 주 두 번 돼지고기 먹기 ③ 일요일마다 수사 드라마 시청하기 ④ 시칠리아에서 여름휴가 보내기

5. 자신이 독일인인지 터키인인지 혼란스러워하는 첸크에게 (고모) 카난은 이야기를 들려 주기로 한다. 그 이야기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 ① 할아버지 후세인이 백만 한 번째 이주노동자로 독일에 입국하던 순간 ② 할아버지 후세인과 할머니 파트마가 독일 시민권을 받기 위해 이민청에 가서 인터뷰 하는 장면 ③ 터키 동남쪽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러브스토리 ④ 할아버지 후세인이 고향 마을에 집을 산 이유

6. 독일로 떠나는 후세인 가족을 배웅하며 고향 사람들이 준 ‘독일’에 관한 정보가 아닌 것은?

- ① 독일 사람들도 신을 믿는다 ② 독일은 춥다 ③ 독일 사람들은 더럽다 ④ 독일에는 먹을 것이 감자 밖에 없다

06/20 월요일 원래 수업 시간에 원래 강의실에서 기말고사

시험 범위: 전쟁(2차 세계대전), 서독, 동독, 통일, 다문화 사회

총 30점 만점: 1. 객관식(영화 10문제), 2. OX(15문제), 3. 약술형(5문제)

3. 약술형 문제(1점씩 5문제, 부분점수 없음) 예:
채찍질 고행단 운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서술하시오.

질문은 Email로만!

 *Herlichen Dank!*